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4월 8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7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4. 7.(목)	담당부서	투자유치과
담당과장	이승헌 과장(044-203-4080)	담 당 자	전종형 사무관(044-203-4089)

2022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

- '22. 4. 7.(목) 배포 -

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본 동향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(INSC)과 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의 자료를 바탕으로 '**22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(FDI)**를 분석한 자료임

*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및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(INSC)을 따름

○ 신고금액 및 도착금액은 **'22년 3월 31일까지의 잠정실적을 기준**으로 작성하였으며, **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**함

○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**매 분기 발표**되며, **'22년 2분기(누적)**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**'22년 7월 발표 예정**

신고기준 54.5억불 · 830건, 도착기준 43.3억불 · 663건

- 1분기 기준, 역대 최대 신고금액 및 역대 2위 도착금액 기록 -

- 제조업(+267%), 그린필드(+128.5%), 신규투자(+42.2%) 등이 대폭 증가 -

Ⅰ. 총 괄

□ (금액) ’22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(FDI)는 신고기준 54.5억불(+14.9%), 도착기준 43.3억불(△2.6%)을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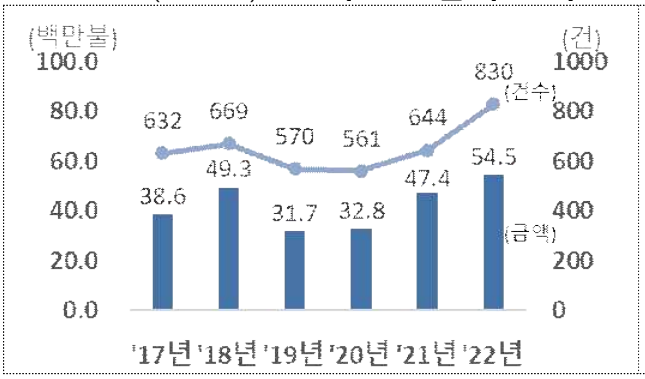
* 1분기 기준 신고는 역대 최대실적, 도착은 역대 2위 실적(1위는 '21년 44.5억불)

< 연도별 1분기 FDI 실적(단위 : 억불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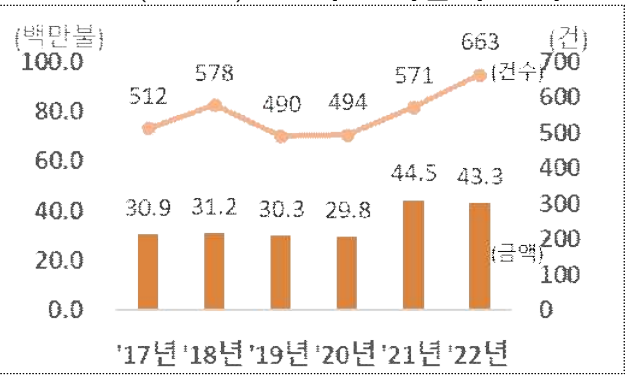
구분	'22년 1분기	(전년동기比)	'21년 1분기	’20년 1분기	5년 평균 ('17.1Q~'21.1Q)
신고	54.5	+14.9%	47.4	32.8	40.0
도착	43.3	△2.6%	44.5	29.9	33.3

□ (건수) 신고기준 830건(+28.9%), 도착기준 663건(+16.1%)을 기록

< 연도별('17~'22) 1분기 신고금액·건수 >



< 연도별('17~'22) 1분기 도착금액·건수 >



□ (평가) 우크라이나 사태, 국제유가·원자재가 상승 등 불확실한 전세계적 투자환경 속에서도 量的·質的으로 우수한 실적

○ 투자금액과 투자건수 모두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量的 측면에서 우수한 실적 기록

○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의 신규투자 증가 등 투자의 質的 측면에서도 좋은 실적을 기록

Ⅱ. 세부 동향(업종별 · 국가별 · 대상별 · 자금별 · 지역별)

1. 업종별

□ (신고금액) 제조업(+267.0%, 비중 30.0%)이 크게 증가, 서비스업(△9.4%, 비중 69.2%)과 기타업종(△69.1%, 비중 0.8%)은 감소

* 기타업종 : 1차 산업(농·축·수산·광업), 전기가스·수도·환경정화업 등

< 업종별 신고금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< 업종별 신고건수 (단위 : 건) >



○ (제조업) 16.4억불(전년동기比 +267.0%, 비중 30.0%)

< '21년 1분기 신고금액 >



< '22년 1분기 신고금액 >



식품 · 기계장비 · 의료정밀 · 화공 · 섬유 · 직물 · 의류
운송용 기계 · 전기 · 전자 · 금속 · 금속가공제품 · 의약

- 증가업종은 식품(+594.1%), 기계장비·의료정밀(+487.0%), 운송용기계(+98.1%), 전기·전자(+70.5%), 반도체(+370.7%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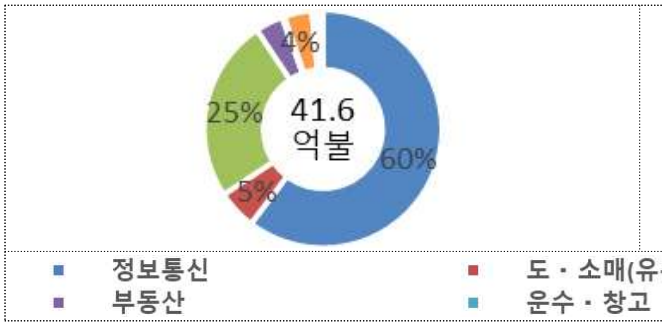
* (주요 투자사례) A社(식품, 571백만불), B社(기계장비·의료정밀, 262백만불), C社(운송용기계, 40백만불), D社(전기·전자, 35백만불)

- 감소업종은 비금속광물(△78.1%), 제지·목재(△100.0%)

○ (서비스업) 37.7억불(전년동기比 △9.4%*, 비중 69.2%)

* '21.1분기 대형 투자사례(E社, 21억불, EU·M&A형)로 인한 역기저효과

< '21년 1분기 신고금액 >



< '22년 1분기 신고금액 >



- 증가업종은 **운수·창고**(+3,470.1%), **도·소매**(+299.4%) **부동산**(+221.1%) 등

- 감소업종은 **정보통신**(△60.8%), **연구개발·전문·과학기술**(△22.7%) 등

* (주요 투자사례) F社(금융·보험, 476백만불), G社(도·소매, 400백만불), H社(운수·창고, 347백만불), I社(정보통신, 253백만불)

□ **(신고건수) 제조업**(△1.1%, 94건)은 **감소**하고 **서비스업**(+30.9%, 699건)·**기타업종**(+146.7%, 37건)은 **증가**, **건당 신고금액**은 **제조업에서 크게 증가**(4.7→17.4백만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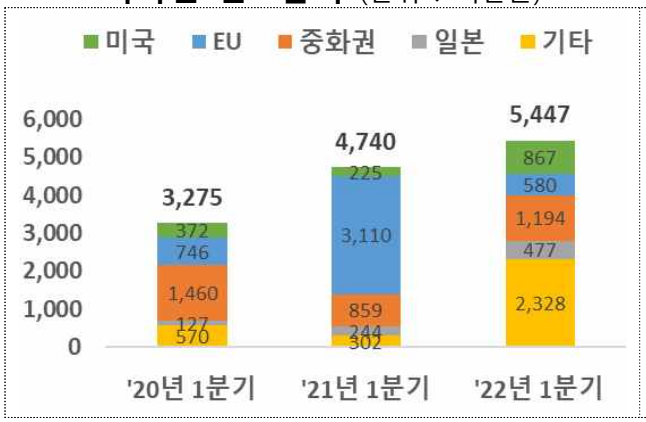
2. 국가별

* EU : 영국 포함, 중화권 : 중국·홍콩·싱가포르·말레이시아·대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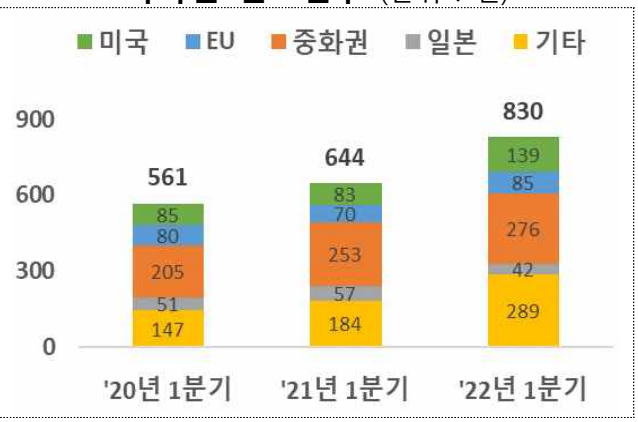
□ **(신고금액) EU**(△81.3%, 비중 10.7%)**를 제외***한 **미국**(+284.7%, 비중 15.9%), **일본**(+95.5%, 비중 8.8%), **중화권**(+39.0%, 비중 21.9%), **기타**(+671.1%, 비중 42.7%) **모두 증가**

* '21.1분기 대형 투자사례(E社, 21억불, 서비스업·M&A형)로 인한 역기저효과

< 국가별 신고금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< 국가별 신고건수 (단위 : 건) >



○ (미국) 8.7억불(전년동기比 +284.7%, 비중 15.9%)

* 업종별 : 제조업(1.3억불, +1.8%), 서비스업(7.4억불, +663.7%)
* 유형별 : M&A형(0.3억불, +59.1%), 그린필드형(8.4억불, +303.8%)

- (업종별)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증가, 서비스업이 큰 폭 증가
- (유형별) M&A형과 그린필드형 모두 증가, 그린필드형이 큰 폭 증가

* (주요 서비스업·그린필드형 투자사례) G社(400백만불), J社(93백만불), K社(90백만불)

○ (EU) 5.8억불(전년동기比 △81.3%, 비중 10.7%)

* 업종별 : 제조업(1.9억불, +1.4%), 서비스업(3.7억불, △87.3%)
* 유형별 : M&A형(1.8억불, △93.5%), 그린필드형(4.0억불, +2.1%)

- (업종별) 제조업은 증가, 서비스업은 큰 폭 감소
- (유형별) 그린필드형은 증가, M&A형은 큰 폭 감소

* '21.1분기 대형 투자사례(E社, 21억불, 서비스업·M&A형)로 인한 역기저효과

○ (중화권) 11.9억불(전년동기比 +39.0%, 비중 21.9%)

* 업종별 : 제조업(1.7억불, +131.2%), 서비스업(10.2억불, +51.4%)
* 유형별 : M&A형(4.4억불, +28.7%), 그린필드형(7.6억불, +45.8%)

- (업종별)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증가, 특히 중국發 제조업 투자*가 다수 유입되어 제조업의 증가율이 높음

* (주요 투자사례) L社(기계장비, 60백만불), C社(운송용기계, 40백만불)

- (유형별) 그린필드형과 M&A형 모두 고르게 증가

○ (일본) 4.8억불(전년동기比 +94.6%, 비중 8.8%)

* 업종별 : 제조업(1.8억불, +411.2%), 서비스업(3.0억불, +42.8%)
* 유형별 : M&A형(3.1억불, +2,654.3%), 그린필드형(1.7억불, △28.3%)

- (업종별)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증가, 제조업이 큰 폭 증가

* 제조업은 화공(+499.1%), 기계장비·의료정밀(+445.5%) 등 소부장 투자 유입
* (주요 투자사례) M社(화공·그린필드, 99백만불)

- (유형별) 그린필드형 감소(△28.3%)에 비해 M&A형 위주 증가(+2,654.3%)

* (주요 투자사례) I社(정보통신·M&A, 253백만불)

□ **(신고건수) 미국**(+67.5%, 139건)**·EU**(+21.4%, 85건)**·중화권**(+9.1%, 276건)은 **증가, 일본**(△26.3%, 42건)은 **감소, 건당 신고금액**은 **EU가 크게 감소**(44.8→6.8백만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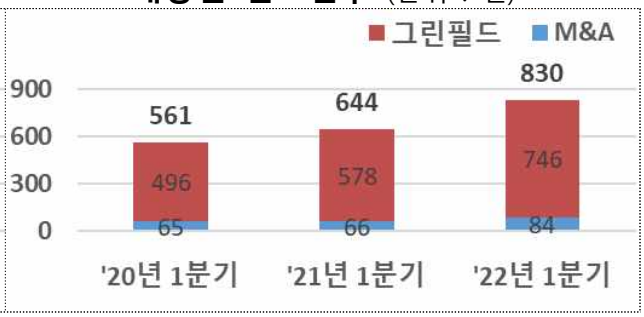
3. 대상별

□ **(신고금액) M&A형**(△44.5%, 비중 31.7%) 투자가 **감소**하였으나, **그린필드형**(+128.5%, 비중 68.3%) 투자가 **대폭 증가**

< 대상별 신고금액 (단위 : 백만불) **>**



< 대상별 신고건수 (단위 : 건) **>**



○ **(그린필드형) 37.2억불**(전년동기比 **+128.5%, 비중 68.3%**)로, **제조업**(+243.9%) **및 서비스업**(+112.2%) **모두 증가**

* (주요 투자사례) A社(식품, 571백만불), N社(의약, 43백만불)

○ **(M&A형) 17.3억불**(전년동기比 **△44.5%, 비중 31.7%**)로, **금융·보험**(△93.0%), **정보통신**(△76.3%) 등의 **서비스업 투자가 감소**하며 전년 대비 **전체 감소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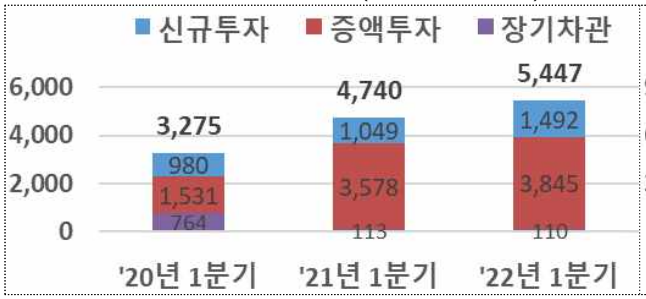
* '21.1분기 대형 투자사례(E社, 21억불, 서비스업·EU)로 인한 역기저효과

□ **(신고건수) 그린필드형**(+29.1%, 746건), **M&A형**(+27.3%, 84건) **모두 고르게 증가, 건당 신고금액**은 **그린필드형 투자**에서 **증가**(2.8→5.0백만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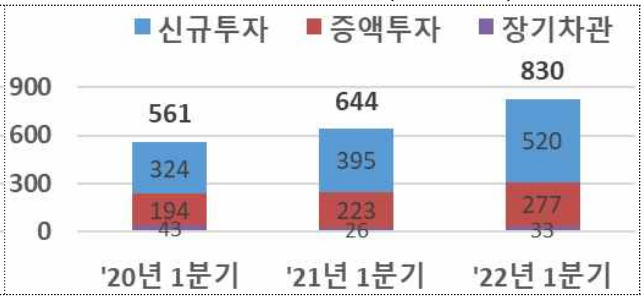
4. 자금별

□ **(신고금액) 신규투자**(+42.2%, 비중 27.4%) 및 **증액투자**(+7.5%, 비중 70.6%)는 **증가, 장기차관**(△3.8%, 비중 2.0%)은 **감소**

< 자금별 신고금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< 자금별 신고건수 (단위 : 건) >



○ (신규투자) 14.9억불(전년동기比 +42.2%, 비중 27.4%)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 증가하였으며, 제조업에서 증가를 견인

* (주요 투자사례) B社(기계장비, 262백만불), O社(섬유·직물·의류, 93백만불)

○ (증액투자) 38.4억불(전년동기比 +7.5%, 비중 70.6%)로 서비스업은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

* (주요 투자사례) A社(식품, 571백만불), M社(화공, 99백만불)

○ (장기차관) 1.1억불(전년동기比 △3.8%, 비중 2.0%)

□ (신고건수) 신규투자(+31.6%, 520건)·증액투자(+24.2%, 277건)·장기차관(+26.9%, 33건) 모두 증가, 건당 신고금액은 신규투자만 소폭 증가(2.7→2.9백만불)

5. 지역별

* 수도권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/ 수도권 外 : 이외 14개 시·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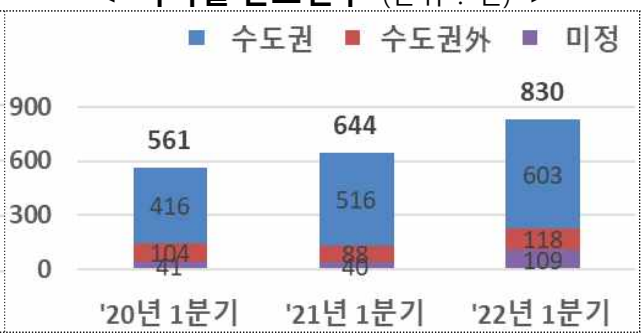
※ 투자금액이 신고(법인 소재지 기준)된 해당 지역에 모두 유입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

□ (신고금액) 수도권(△8.0%, 비중 68.2%)은 감소, 수도권 外(+149.5%, 비중 17.2%)는 증가

< 지역별 신고금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< 지역별 신고건수 (단위 : 건) >



○ **(수도권) 37.2억불(전년동기比 △8.0%, 비중 68.2%)**로 **제조업**(+363.4%)은 **크게 증가**한 반면 **서비스업**(△21.1%)은 **감소**

* 서울(△23.9%)의 신고금액이 감소한 반면, 경기(+197.6%) 및 인천(+719.7%)의 신고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

○ **(수도권 外) 9.4억불(전년동기比 +149.5%, 비중 17.2%)**로 **제조업**(+273.7%) **및 서비스업**(+269.5%) **모두 증가**

* 강원(1348.9%), 제주(565.0%), 전북(470.9%) 등 8개 시·도에서 신고금액 증가
광주(△89.6%), 울산(△84.4%), 대구(△81.6%) 등 6개 시·도에서 신고금액 감소

□ **(신고건수) 수도권**(+16.9%, 603건)**·수도권 外**(+34.1%, 118건) **모두 증가, 건당 신고금액**이 **수도권 外**에서 **증가**(4.3→7.9백만불)

○ **(수도권) 제조업**(△6.9%)은 **소폭 감소**하고, **서비스업**(+17.5%)은 **증가**

* 서울(+17.8%), 인천(+61.7%)의 신고건수는 증가, 경기(△14.3%)는 감소

○ **(수도권 外) 제조업**(△8.6%)은 **소폭 감소**하고, **서비스업**(+56.8%)은 **증가**

* 강원(+166.7%), 광주(+100%), 충남(+100%) 등 8개 시·도에서 신고건수 증가
전남 및 제주 2개 시·도는 동일, 대구(△50%), 울산(△33.3%) 등 4개 시·도 감소

Ⅲ. '22년 1분기 외투 주요 사례(신고금액 상위 20개)

구분	내용	금액	업종	국가
그린필드	▸ **(○○社)** 고기능성 건강기능식품	10억불 미만 ~ 1억불 이상	제조 (식품)	과테말라
	▸ **(○○社)** 위탁급식업체 투자		서비스 (금융·보험)	케이만 군도
	▸ **(○○社)** 신규 물류센터 건립		서비스 (도·소매)	미국
	▸ **(○○社)** 의료기기 및 미용기기		제조 (기계장비)	케이만 군도
	▸ **(○○社)** 물류창고 건립		서비스 (부동산)	싱가포르
	▸ **(○○社)** 온·오프라인 커머스시스템 확대		서비스 (도·소매)	케이만 군도
	▸ **(○○社)** ArF 포토레지스트	1억불 미만 ~ 5천만불 이상	제조 (전자·전기)	과테말라
	▸ **(○○社)** 반도체 장비 R&D센터		서비스 (도·소매)	미국
	▸ **(○○社)**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		서비스 (정보통신)	미국
	▸ **(○○社)** 간편식 사업 확장		제조 (식품)	몰타
	▸ **(○○社)** 블록체인 플랫폼 확장		서비스 (정보통신)	싱가포르
	▸ **(○○社)** 기계장비 생산 확대		제조 (기계장비)	중국
	▸ **(○○社)** 합금 생산 확대		제조 (금속)	미국
M&A	▸ **(○○社)** 보유지분 확대	10억불 미만 ~ 1억불 이상	서비스 (운수창고)	케이만 군도
	▸ **(○○社)** 통신기업 주식예탁증서의 주식 전환		서비스 (정보통신)	일본
	▸ **(○○社)** 부동산 사모펀드		서비스 (부동산)	홍콩
	▸ **(○○社)** 전자책 기업 지분 투자		서비스 (정보통신)	싱가포르
	▸ **(○○社)** 패션브랜드 경영권·지분 인수	1억불 미만 ~ 5천만불 이상	제조 (섬유·직물)	케이만 군도
	▸ **(○○社)** 애드테크 기업 지분 인수		서비스 (정보통신)	싱가포르
	▸ **(○○社)** 선적 확보 위한 항만터미널 지분 인수		서비스 (운수창고)	스위스